

### 자기공명채담관조영술과 내시경적 역행성채담관조영술의 진단적 가치 비교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소화기연구소

김동일, 김창덕, 천황래, 백창원, 유상균, 김용식, 진윤태,  
이홍식, 전훈재, 엄순호, 이상우, 최재현, 류호상, 현진태

**목적:** 자기공명채담관조영술(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; MRCP)의 등장으로 진단 목적의 내시경적 역행성채담관조영술(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; ERCP)의 시행은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. 다양한 채담관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MRCP와 ERCP의 진단적 가치를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 **대상 및 방법:** 최근 2년간 본원에서 MRCP와 ERCP를 모두 시행한 환자 중 두 검사간의 시간차이가 24 시간 이내인 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MRCP와 ERCP의 채담관 질환에 대한 진단적 민감도, 특이도 등을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. 확진은 조직검사, 수술소견, 초음파검사, 컴퓨터단층촬영, 내시경적 결석제거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였다. **결과:** 87명의 진단은 총담관 결석 38예, 담낭 결석 2예, 담관암 40예, 췌장두부암 2예, 양성협착 2예, 정상 3예이었다. 결석(총담관 및 담낭 결석)에 있어서 MRCP의 민감도, 특이도, 양성예측도, 음성예측도, 정확도는 95%, 93.6%, 92.7%, 95.6%, 94.3%였고, ERCP의 경우 95%, 97.9%, 97.4%, 95.8%, 96.6%로 두 검사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양성협착(담도암, 췌장두부암)에 있어서 MRCP의 민감도, 특이도, 양성예측도, 음성예측도, 정확도는 92.9%, 97.8%, 97.5%, 93.6%, 95.4%였고, ERCP의 경우 95.2%, 100%, 100%, 95.7%, 97.7%로 두 검사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. **결론:** 채담관 질환에 대한 진단적 민감도 및 특이도에 있어서 MRCP와 ERCP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. 향후 진단 목적의 검사를 실시할 경우 비침습적인 MRCP가 ERCP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된다.

###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 (ERCP)의 실패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률

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

심성준, 김중수, 임태영, 신도현, 임선교, 이기명, 이광재, 유병무, 김전홍, 조성원

**목적:** ERCP는 췌장 및 담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유용한 내시경적 시술이지만 비교적 침습적인 검사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. ERCP 시행 시 합병증은 삼관 시도 횟수가 증가하거나, 유두부 전 절개를 시행하는 경우, 췌관 조영제가 다량 주입 된 경우에 발생률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연구자 등은 ERCP 시행 중 검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환자들에 있어서 합병증 발생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 **대상 및 방법:** 1997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ERCP를 시행 받은 3467명의 환자 중 유두부 접근에 실패하거나, 삼관에 실패한 68명(남:여 = 37:31, 평균 연령: 60.1세)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발생률을 조사하였다. 합병증은 ERCP 시행 후 일주일 내에 발생하는 단기 합병증만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**결과:** 1) ERCP 실패율은 1.96%(68/3467) 이었다.. 2) ERCP의 실패 원인은 유두부 접근에 실패한 경우가 47%(32/68), 유두부 삼관에 실패한 경우가 53%(36/68) 이었다. 3) 유두부 접근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십이지장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47%(15/32), 수술 후 변형 등으로 유두부를 찾지 못한 경우가 44%(14/32), 환자의 순응도가 낮아 ERCP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9%(3/32)이었다. 4) 삼관에 실패한 경우는 담관과 췌관 모두 삼관에 실패한 경우가 50%(18/36), 담관의 선택적 삼관에 실패한 경우가 36%(13/36), 췌관의 선택적 삼관에 실패한 경우가 14%(5명/36명) 이었다. 5) 유두부 접근에 실패한 환자의 9%(3/32)에서 천공(1예), 출혈(2예) 등이 합병증이 발생하였다. 6) 삼관에 실패한 환자 중 39%(14/36)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담관과 췌관 모두 삼관에 실패한 환자에서는 췌장염 1예, 천공 4예, 출혈 2예, 담도염 1예가 발생하였으며, 담관의 선택적 삼관에 실패한 환자에서는 췌장염 4예, 출혈 1예, 천공 1예가 발생하였다. **결론:** ERCP 실패 후 합병증은 관찰만으로 호전되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천공 등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까지 다양하다.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특히 유두부에 접근은 가능하였으나 삼관에 실패하거나, 선택적 삼관에 실패한 경우에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, ERCP를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.